



양양소식

2023. 12

Vol. 343

CONTENTS

04 기획특집

10대 뉴스로 만나보는 2023 양양

08 함께 가는 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만에 착공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12 Story in 양양

북(BOOK) 돋는 양양

양=양= 장터에서

조정례

친구들 고무줄놀이 할 때
눈물 흠치며 저었다고

흔나며
열 살부터 쑤었다고

눌러 붙지 않으려
젓고 또 저은 인생

엄마의 묵 기술이
천직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수천 번도 더 굽혔을 등 뒤로
환하게 웃는 여자



조정례 (양양문인협회 회원)





CONTENTS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10대 뉴스로 만나보는 2023 양양
- 8 함께 가는 길_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만에 착공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 12 Story in 양양_ 북(BOOK)돋는 양양
- 15 제2회 양양4계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 16 의정소식_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 18 향토사 이야기_ 어성전리 명주사 동종의 내력
- 20 YANGYANG NEWS

COVER DESIGN



의기양양

- 22 문화마당_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_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열린양양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양양소식 · 343호

- | 발행일 2023년 12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변화의 중심, 양양시대 완성 10대 뉴스로 만나보는 2023 양양

01 오색케이블카 설치, 41년 군민염원 담아 착공식

02 친환경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비전선포식 및 연어자연산란장 기공식

03 육아지원센터 준공으로 인한 정주권 도시 기반조성

04 낙산도립공원 폐지 후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 탄력

05 스마트 관광도시 및 스마트 농업으로 변모

06 남대천르네상스 사업 마무리로 아름다운 도시 탈바꿈

07 양양역 주변 역세권 도시개발 공모사업 선정
100억 확보, 국비 확보를 통한 도시기반 구축 조성

08 남애항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
국비 150억 확보를 통한 어촌마을 변모

09 2023 양양 송이 · 연어축제 통합축제 성공 개최

10 다목적 체육관, 볼링장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01 오색케이블카 설치, 41년 군민염원 담아 착공식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군이 41년의 염원을 담아 추진해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착공식이 11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군의회 의장과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예정 부지에서 열렸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오색지구 하부 정류장에서 끝청까지 왕복하는 연장 3.3km의 노선으로, 상부정류장은 해발 1,430m 높이에 설치돼 8인승 53대의 캐빈이 시간당 최대 825명을 실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총사업비는 1,192억으로 2026년 초까지 완공하여 시운전을 마치면 2026년 상반기에는 남녀노소, 이동약자 등 온 국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케이블카를 타고 대한민국의 최고 명산인 설악산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게 된다.



02 친환경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비전선포식 및 연어자연산란장 기공식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연어양식단지) 강원형 K-연어산업 비전 선포식이 11월 20일 양양 남대천에서 개최되었다. 동원산업이 추진하는 대서양 연어 양식 사업은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 116,818㎡ 부지에 국내 최초 연어 양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2025년부터 연 2만톤의 연어를 생산하여 미래 산업 먹거리 확충과 인구 유입은 물론 주민 소득 창출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10월 손양면 가평리 498-4번지 58,152㎡에 전국 최초 연어 자연 산란장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사업비 232억원(국도비 포함)를 들여 인공수로 500m, 연어 관리시설과 산책로, 쉼터, 연어 연구관리동 등 연어자연산란 시설을 2024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03 육아지원센터 준공으로 인한 정주권 도시 기반조성

전국 최초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포함한 육아지원센터가 올해 말 완공하여 2024년 3월에 개원하게 되면 출산과 산후조리가 가능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며 경제활동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정주권 도시로서의 기반도 확고히 할 것이다. 또한 올해 보건소에서는 진료할 병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을 위해 산부인과와 암과 진료를 실시하여 산모들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4 낙산도립공원 폐지 후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 탄력

40년 동안 도립공원에 묶여 각종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던 낙산지구를 비롯한 인구, 하조대 해변 인근에 대규모 콘도와 호텔 등이 건축 중에 있다. 앞으로 우리군은 관광객 수요에 맞는 양질의 숙박시설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와 명실상부한 영동지역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05 스마트 관광도시 및 스마트 농업으로 변모

우리군을 방문하기 전 모바일『고고양양 앱』하나만 설치하면 스마트 폰 하나로 지역관광 및 서핑정보 검색, 서핑숍·관광체험·음식점·카페 등을 예약 결제할 수 있고, 양양브랜드 콜택시를 버튼 하나로 호출할 수 있으며, 관광과 관련한 13개 카테고리 1,000여개 관광 스팟에 대한 상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우리군은 스마트 딸기 재배를 육성하기 위한 신품종 딸기 육종가 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업 신소득 전략작 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06 남대천르네상스 사업 마무리로 아름다운 도시 탈바꿈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남대천을 양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대부분 마무리 되어 아름다운 도시 환경으로 탈바꿈하였다. 연어관찰 수로인 샛강 및 여울, 잔디광장, 어화원,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산책로가 조성되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휴식·힐링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 2020년 10월 송이공원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27홀로 조성하였으나, 매년 이용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45홀로 확장함으로써 수용인원도 늘리고 내년 봄 전국대회 개최 추진으로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07

양양역 주변 역세권 도시개발 공모사업 선정 100억 확보, 국비 확보를 통한 도시기반 구축 조성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인구, 기업체 집중 등으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우리군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부문에 선정되어, 2027년 개통 예정인 동해북부선 철도 양양역 예정지 인근 송암리 29-20번지 약 571,604㎡의 부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09

2023 양양 송이 · 연어축제 통합축제 성공 개최

올해 첫 통합축제로 열린 '2023 송이&연어축제'가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를 기반으로 스마트 문화축제로 승화 하며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한 가을 추억을 선사했다. 올해 축제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남대천 둔치를 중심으로 전통시장, 물놀이장 등에서 열려, 로컬·공간·마켓이라는 3대 요소를 축제에 접목하여 기존 축제의 틀을 깨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10월 4일 막을 올린 개막식은 군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고 다채로운 체험거리, 먹거리를 통해 약 19만3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08

남애항 클린(CLEAN) 국가어항 사업 국비 150억 확보 를 통한 어촌마을 변모

강원특별자치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남애항이 지난해 11월 클린어항으로 선정된 후,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50억 원을 포함 모두 269억 원을 들여 남애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모시켜 명성에 걸맞은 명품 어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클린 국가어항 사업은 무질서한 어항 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정비하고 어구창고,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국 115개 국가 어항에서 21개 어항이 사업을 신청해 전국에서 남애항을 포함한 5개 항만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10

다목적 체육관, 볼링장 건립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양양읍 구교리 184-2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149㎡ 규모로 12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기존 양양생활체육센터(탁구장) 2층을 볼링장(14개 레일)으로 증축하여 내년 5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볼링장이 없던 우리군에서는 볼링 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현남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이며, 현북면 생활체육공원은 내년 1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41년만에 착공식 개최

대한민국 산악관광 활성화 새로운 전기 기대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1982년 당시 강원도가 양양군과 군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업을 공론화하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식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문화재현상변경 불허가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2002년을 전후해 설악산의 획기적인 산악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거론되며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양양군은 당시 양양국제공항 개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와 함께 설악권의 실질적인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해 2001년 오색~대청봉 구간의 사업타당성조사와 200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추진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양양군은 지난 2004년부터 국립공원 내 삭도길 이를 2km에서 5km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타당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자연공원법 개정을 이끌어내면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의 길이 새롭게 열었다.



이어 지난 2010년에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삽도설치 시범사업을 국정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양양군은 2011년 3월 주봉인 대청봉인근까지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처음 신청했지만 이듬해인 2012년 6월 환경부의 시범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돼 좌절되는 아픔을 맛봤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2012년 11월 환경성과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보완한 삽도설치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이후 2013년 7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오색케이블카 현지실사와 8월 환경부 주관 시민환경단체 공청회를 마치는 등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원위원회의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의 좌절을 겪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원방안 논의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고, 양양군은 2015년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대안노선 확정(오색~끝청)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을 최종 수정하였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민간전문위원 현장 조사를 거쳐 그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으나, 이듬해 7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접수했으나, 12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부결 처리되며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양군과 군민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여러차례의 집회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표출하여 최종적으로 2017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 재결을 받았다.

이후 2019년 5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2019년 9월 16일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또 다시 좌절을 겪게 됐다. 이에 양양군과 군민들은 2019년 12월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 2020년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1년 원주지방환경청이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하여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에 나섰으며, '조건부 동의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산지, 재정, 공원, 시설결정, 기술심의 등 관련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지난 11월 20일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거행했다.



왼쪽부터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하 양양군수가 사업의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연계 활성화 기대

우리나라 내륙형 국립공원 내에서 최초로 설치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산악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 를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 사업은 낙산지구의 도심화와 동해북부선 역세권 조성, 여객터미널 설치 등과 함께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연어자연산란장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감 을 높이고 있다. 오색케이블카를 타고 난 후 남대천을 따라

국내 유일의 연어연구거점인 손양면 송현리 동해생명자원 센터 인근 부지의 연어자연산란장을 찾아 연어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완공되면 연간 57만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획기적인 교통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침체에 놓인 오색지구의 산악관광 활성화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양양도심권의 경기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

#국내 유일의 마라톤 코스 #빈틈없는 대회운영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회

멀리 병풍같은 산에 둘러싸인 길을 지나면, 곧바로 시원하게 쭉 뻗은 강을 마주하며 아름드리 나무가 우거진 강변길.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탁 트인 바다가 눈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라니. 영화에서도 쉽게 등장하기 힘든 장면이 아닐까 싶지만, 그런 길이 우리 양양군에 있다. 르네상스 사업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남대천 이야기다. 지난 10월 22일 설악산과 남대천, 동해바다를 잇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이 길을 코스로 하는 2023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국내 유일의 마라톤 코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양양 강변 전국 마라톤 대회가 마라토너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설악산과 남대천, 동해바다를 끼고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길은 상상만으로도 기가 막힌 달리기 코스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대회부터 성황을 이뤄 비가 오는 날은 날씨임에도 약 3천 명의 참가자가 몰렸으며, 올해 10월에 열린 대회에서는 당일 바람이 많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많은 약 4천 명의 참가자들이 몰려들어 국내 유일무이한 마라톤 코스를 달렸다.

코스는 일반부 하프, 10km, 5km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엘리트 마라톤 선수 육성을 위해 전국 고등학교 10km 대회와 중학교 5km 대회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양양 웰컴센터를 출발해 남대천 일출로와 낙산대교를 거쳐 동호해변을 반환점으로 하여 국내 유일의 산과 강, 바다를 모두 포함한 코스를 완성하였다. 또, 남대천변에 조성한 대규모 국화단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달리기에 충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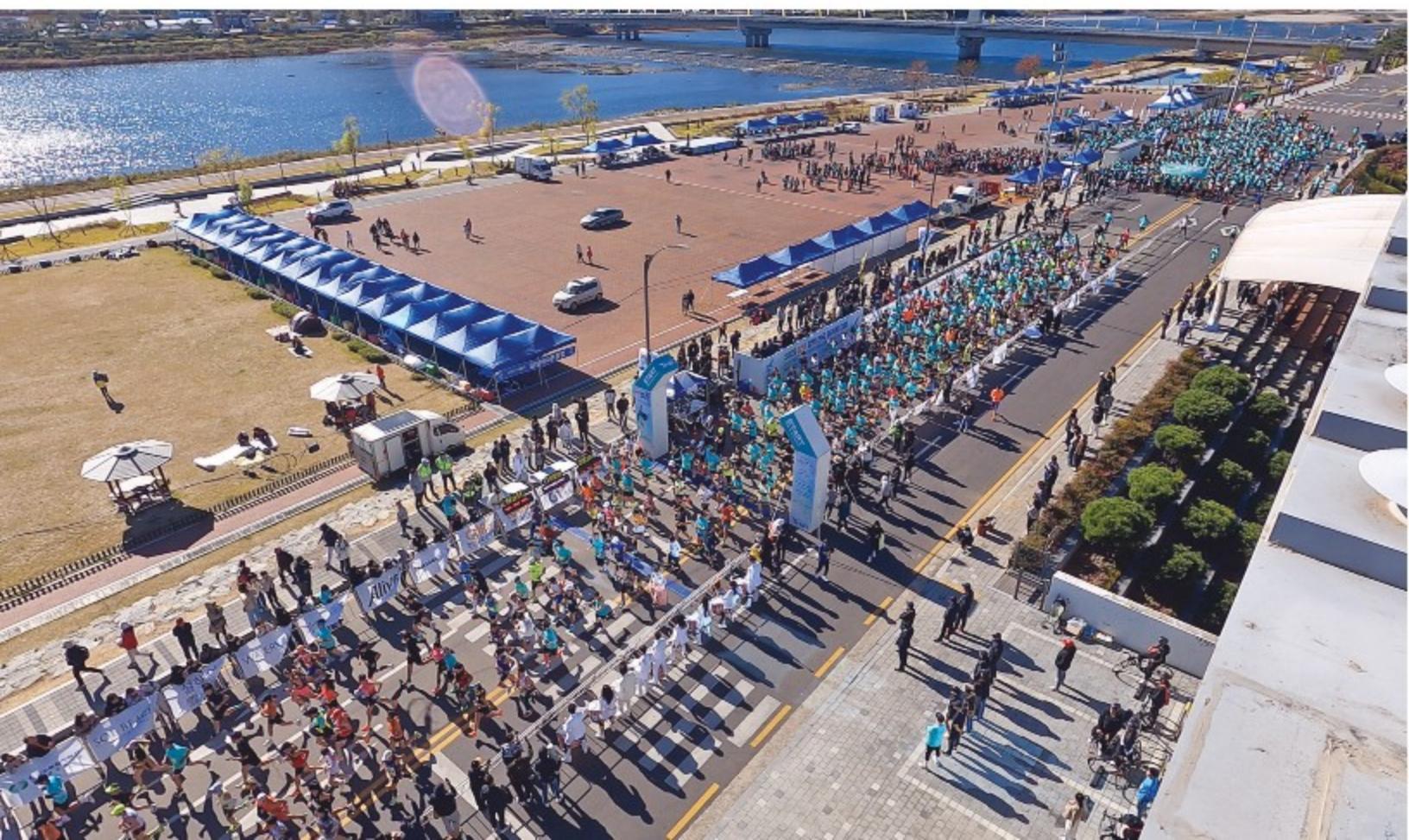
군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대회

전국 규모의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군민들의 숨은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대회 일정 동안 주요 코스 구간인 남대천 제방도로는 전면 통제하고, 일부 구간은 부분통제를 하는 등 군민들의 불편과 주변 상가들이 불이익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갈등 없이 무사히 대회를 치를 수 있었다.

또, 대회 운영 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체육회 등 3백 명 가까운 군민들이 대회 곳곳 주요 지점에 배치되어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동해 주었다.

그리고 국화를 심고, 안전관리를 하고, 불편을 감수해내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한 우리 군민들이 있었다. 올해 두 번째로 치른 양양 강변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라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대회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글·사진 : 편집부〉



북(BOOK)돋는 양양

양양을 읽다, 양양을 쓰다, 양양을 느끼다

독서를 즐기고 문장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책’은 ‘그냥 책’이 아니다. 책 속의 활자들은 우리 마음속에 씨앗처럼 흩뿌려져 꽃을 틔우고 숲을 이룬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란 열매들이 또 하나의 문장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것이 독서와 글 쓰기의 관계이다. 이처럼 읽기와 쓰기 사이를 오가는 동안 우리의 내면은 더욱 성장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진다.

양양문화재단은 ‘북(BOOK)돋는 양양’이라는 기획사업을 통해 독서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책의 도시, 양양’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최근에는 지역민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양양의 숨은 매력을 재조명하는 에세이집을 제작해 발간을 앞두고 있다. 양양의 이야기가 담긴 책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꽃을 피울까?



책이 스며든 도시, 양양

양양웰컴센터 옆에 자리한 다목적광장에 가면 빨간 공중전화부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공중전화도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는데,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전화부스의 존재가 반가우면서도 신기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부스 안에는 공중전화 대신 몇 권의 책이 비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도 붙어있다. 그 어떤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도서를 대여하는 공간. 책을 품은 공중전화부스에는 이 근처를 지나가는 누구든지 잠깐 멈춰서서 다만 몇 페이지라도 부담 없이 읽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었다.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길어진 요즘, 해마다 독서 인구가 감소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독서의 일상화를 꾀하려는 시도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양양도 그중 하나다.

양양문화재단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기획사업인 '북(BOOK)돋는 양양'에는 이 지역을 '책 읽는 도시'로 일구겠다는 포부가 담겨있다. 유명 저자 특강부터 북토크쇼, 아동 대상 책 프로그램, 북돋는 양양 올데이 북피크닉 등 책을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독서를 통해 성장을 꾀하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

양양웰컴센터 1층에 마련한 '다독다독 책마루'는 양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간으로, 지역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책을 읽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도서를 비치한 서가와 예약을 통해 대여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하여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버릇처럼 들여다보던 스마트폰 화면 대신 책장을 넘기고 싶어질 정도로 양양의 구석구석에 책이 스며들어 있었다.



양양에서는 누구나 작가가 된다.

'북(BOOK)돋는 양양' 사업을 통해 '책을 읽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과연 책을 읽는 것만으로 독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따라왔다. 양양문화재단은 직접 글을 써봐야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문 작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창작의 영역에 평범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그렇게 누구나 작가가 되어 나만의 문장을 남겨보는 쪽책 발간 프로젝트 '당신의 에세이를 기다립니다.'가 시작되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양양에 거주하는 주민과 귀촌인, 양양을 다녀간 여행자들의 원고들이 접수되었다. 여기에 특강을 통해 양양과 인연을 맺은 작가들의 깊이 있는 문장들까지 더해져 양양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 '양양, 그리고'가 완성되었다.

이제부터 책 보러 양양 간다.

에세이집 ‘양양, 그리고’는 다가오는 12월 16일에 열리는 송년음악회에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된다고 한다. 이후에는 팝업 스토어 공간을 마련해서 더 많은 이와 함께 에세이집을 공유할 예정이다.

동시에 에세이집의 일부 작품들을 아코디언 접지 형태의 쪽책으로 제작, 양양의 해변·카페·펜션 등에 비치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양양의 매력이 담긴 문장들을 즐기게 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 작가들이 글쓰기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에세이집에서 발췌한 문장들과 작가명을 양양문화재단 홈페이지와 양양 작은영화관의 DID 모니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선보이는 중이다. 작가와 독자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독서와 글쓰기의 즐거움을 전파하는 데 이번 에세이집이 제대로 활약했다는 생각이 든다.

김호열 양양문화재단 이사는 “이번 사업은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자가 되어 문화의 문턱을 낮추고, 문화를 꽂피우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꺼이 생각을 나눠주신 작가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이 같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양문화재단은 해변에 누워 책 읽는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북비치(Book-beach)를 비롯해 양양의 구석구석에서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일구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책의 도시'하면 누구나 '양양'을 떠올리는 미래를 꿈꾸면서 말이다.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꺼이 그 꿈속에서 읽고 쓰는 삶을 이어가고 싶어진다.

〈글·사진: 편집부〉



제2회 양양4계 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수상작



일반사진부분(디지털) 금상
해수관음상 연등행사 김0수(속초)



일반사진부분(디지털) 은상
낙산사 의상대 물안개 김0휘(속초)



일반사진부분(디지털) 동상
연어맨손잡기 장0선(속초)



일반사진부분(디지털) 동상
오메가 권0구(경기)



의
정
소
식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운영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출연금 동의안, 조례안 11건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 심의 · 의결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제27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하여 재단법인 양양군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 의결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2023년도 군정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군정 전반에 대한 부당한 행정 사례 등 행정의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지방교부세의 감소 등으로 금년 예산 대비 2.21% 감소 한 4,251억 원으로 편성된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오세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는 의정과 군정이 만나는 최접점으로서 군정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 만큼 우리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양양군의회 주관, '양양군 교육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10월 30일 개최된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주관 '양양군 교육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7명의 패널들이 참여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학교를 살리고, 교육지원청 부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육 현실에 대한 토론의장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청·지자체·학교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공동학군 조성과 강원국제 교육원 활용방안 마련 등의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으로는 교육발전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역 위원회를 만들어 양양군 교육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공동학구를 조성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초중고 연계 교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동참



양양군의회(의장 오세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양양연탄은행이 주관하는 '2023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동참하여 연탄 600여장을 기탁하고, 관내 2가구에 200장씩 총 400장을 직접 배달하는 등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오세만 의장은 "동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 함께 봉사를 실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잘 살피고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성전리 명주사 동종의 내력



어성전리는 주변의 산들이 성곽을 이룬 듯하고 기름진 전답이 수만 평에 이르며 크고 작은 계곡물들이 흘러들어 물고기가 풍부하여 예부터 사람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런 마을에 어찌 문학과 풍류가 없겠는가.

1920년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라는 시화집이 간행되었는데 “흰 구름 종소리 저녁 산으로 지는데 (백운종낙석양산/白雲鍾落夕陽山), 고요함 속에서 여음을 듣노라니 작은 욕심마저 사라지네 (정청여음세욕잔/靜聽餘音細欲殘)”라는 한시가 실려 있다. ‘산 암자의 저녁 종소리 (산암모종/山庵暮鍾)’라는 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암자와 종소리가 어성전리에 위치한 명주사와 관련이 있어 살펴보자 한다.

● 명주사 동종(銅鐘)의 내력

학계에서는 현재 명주사가 소장한 종을 ‘대흥사명(大興寺銘) 범종’이라고 부른다. 이 동종의 원래 봉안처가 태백산에 소재했던 대흥사(大興寺)였기 때문이다. 대흥사는 현재 불영사(佛影寺)와 함께 울진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으나 1674년 화재로 소실된 정림사를 대신해 창건되었는데 1872년 이후에 폐사되었다. 이 동종은 숙종 30년(1704)에 주조되어 당시 강원도 울진현(蔚珍縣) 대흥사에 봉안되었다가 폐사 후 고종 16년(1879)에 양양 명주사로 옮겨졌다.



〈동종제작 명문〉
康熙肆拾肆年甲申二月江原道蔚珍地南嶺太白山大興寺大鍾造成。鎔鐵肆百斤。

1704년 갑신(甲申) 2월 강원도 울진 남령 태백산에 위치한 대흥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종으로 당초 범종불사에 천학(天學) 스님, 수간(壽幹) 스님, 상성(上性) 스님이 주축이 되었고 강학생(姜鶴生), 이만생(李萬生), 강애생(姜愛生) 등 장인(匠人)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서영(瑞映), 석눌(釋訥), 상열(尙悅) 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시주로 화답하여 범종을 완성하였는데 높이 83cm, 둘레 2.6m의 아담한 규모로 동과 철이 4백 근이 소요되었다 한다. 이 동종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을 건립할 때 새 종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범종을 제작하는 대신 사찰이나 폐사지(廢寺址) 등의 범종을 구입하여 봉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봉선사지』·『봉인사부도암금종기』·『조계산송광사사고』·『진남군벽발산안정사대종연기』등에 그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동종표면에 ‘정충득수복발원(鄭忠得壽福發願)’이라고 선각(線刻) 되어 있는데, 이 동종을 대흥사에서 명주사로 옮기는 불사(佛事)를 추진한 정충득(鄭忠得)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지 제29호에 발표된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 작(作) 울진 “대흥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장(鑄鐘匠) 연구』에서는 ‘이

선각이 동종을 명주사로 이안(移安)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 이안(利安) 원인은 매매로 추정하고 있다.



〈정충득수복발원 선각〉

● 명주사 창건 및 연혁

명주사는 현북면 만월산(滿月山)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고려 제7대 목종 12년(1009)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스님이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서 명주사(明珠寺)라 하였다.

명주사는 고려 제17대 인종 원년(1123) 부속 암자인 청연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여 이 고장에 불교가 크게 번성하였다. 그 후 조선 숙종 2년(1673) 향로암(香爐庵)과 숙종 27년(1701)에 벽옥루(碧玉樓)를 지었으며 정조 5년(1781)에는 연파(蓮坡) 스님이 원통암(圓通庵)을 창건하고 강석(講席)을 열었는데, 항상 100여명의 학도들이 모였다고 한다.

역대 명망이 높던 선사(禪師)들이 후학들을 길렀던 수행승의 요람으로 예로부터 선원(禪院)으로 이름나 많은 학승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명주사에는 12기의 부도와, 연파당대선사비 등 4기의 석비가 조성되어 있어 이것을 보아도 명주사에는 많은 명망 높던 선사들이 머물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12년 건봉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는데 1928년부터 1941년까지는 15동에 95칸 규모를 갖춘 사찰이었다.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현재는 극락전, 삼성각, 종각, 요사 및 종무소가 있을 뿐이다.

● 마음속의 종

종의 모양과 크기만이 종소리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리라. 명주사 범종은 크기로 보면 중소형에 속하고 외형마저 평범한 모습이지만 시심(詩心) 가득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종소리에 못지 않은 울림을 준 것 같다. '산 암자의 저녁 종소리(山庵暮鍾)'의 일부를 다시 읽는다.

"종소리 한 번에 온 산이 울리고(타암종동사산/打庵鐘動四山)

(중략)

범종소리 그치니 저녁 산이 춥네(사종일낙모산한/寺鍾落暮山寒)"



〈1928년 명주사 전경〉



〈현 명주사 범종각과 극락전〉

〈글·사진 : 향토문화원〉

양양뉴스 YANGYANG NEWS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착수

강현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착수

양양군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0월 27일 강현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 조성 사업에 착수했다. 강현 생활체육공원(축구장) 조성 사업 비는 26억원(도비 16, 군비 10)이며, 강현면 정암리 565번지 일원 24,870 m²에 축구장(110m × 81m)과 주차장 82면 등 편의시설을 내년 5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강현면 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종합대회 유치에 탄력을 받으며 전지훈련지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13건 확정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13건 확정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참여하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규모 5 억 400만원, 13건의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30일 열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포월리 마을쉼터 환경개선사업 △설악해변 시계탑 설치 △황이리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 △장산리 숲속쉼터 조성사업 △명지리 마을회관 교량진입로 개선 △가평리 마을안길 침수지역 개선사업 △강현어린이집 진입로 확장 △상왕도리 비탈면 재해예방 시설공사 △강현초교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사업 등 13개 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 및 평생학습 포럼, 16일 개최

'2023 양양군 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 및 평생학습 포럼'이 지난 16일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평생학습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평생학습도시 비전선포식과 포럼은 올해 양양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기념하고, 군민 누구나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인 평생교육 도시 구축을 위한 브랜드 정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양군 청소년동아리,
도 청소년지원봉사 대회 장관상 수상**

양양군 청소년동아리, 도 청소년지원봉사 대회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동아리 '다다르고'가 17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 청소년지원봉사 및 우수활동대회'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동아리 '다다르고'는 '우리 모두 다 높이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양양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인 '상호문화 놀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청소년을 모집하고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자신감 찾기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양군 청소년문화 활동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양군 현남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선정**

현남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선정

양양군 현남면이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청년 유입 부문)에 선정되었고, 시상식은 11월 13일,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농업 인대상 시상과 함께 열렸다.

서평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장기체류를 위한 여건과 지속 방문을 위한 여건이 미비, 지역 중심지인 양양읍과의 거리가 멀어 생활 인프라, 지역 템색 및 정착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가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청년유입 농촌지역 상생 가능성과 의지를 높이 평가받아 선정되었다.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양양군이 소외계층의 문화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 누리카드)의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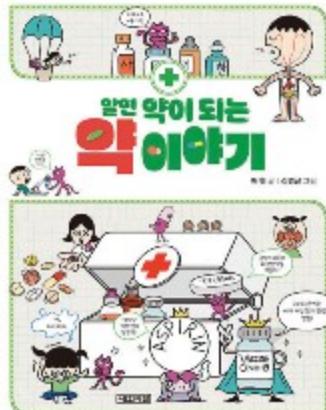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양양군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068명이며, 개인당 연 1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발급한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전국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양양교육도서관 사서추천도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50 양양교육도서관

Tel : 033-672-2679 FAX : 033-672-2689

<https://lib.gwe.go.kr/yylib>

알면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저자 : 배현 지음, 신병근 그림

발행처 : 사계절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아 408-반12ㅅ / 자료위치 : [양양]아동열람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당뇨, 고혈압 등의 각종 약을 한두 개 이상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야말로 약으로 시작해서 약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약과 우리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 걸까? 이 책에서는 우유에 약을 먹으면 왜 안 되는 건지, 약을 먹고 토했을 때는 다시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약국에서 같은 약이라고 했는데 왜 이름이 다른지, 알약의 다양한 색과 모양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막다 남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왜 안 되는 건지 등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른들조차 잘 몰랐던 알쏭달쏭한 약에 대한 지식을 소개한다.

어린이



마주

저자 : 최은미 지음

발행처 : 창비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813.6-최67ㅁ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모두를 불안에 떨게했던 2020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은, '거리두기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고립되고 단절되었던 그 시기를 건너며 우리가 잊어버린 마음들을 보듬는다. 서로를 의심하고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던 팬데믹의 시대에 고립된 이들은 더욱 고립되고 단절된 이들은 더욱 단절될 수밖에 없었음을 세심히 짚어내며,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기꺼이 마주했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기닿을 수 있는 마음을, 따가운 여름볕 아래 익어가는 사과처럼 강렬하고도 산뜻하게 그려낸다. 내 옆에 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는 이번 소설은, 외로움이 하나의 수식어가 된 이 시대 많은 독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갈 것이다.

청소년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민족의 간접학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법
최은미 저 / 이수연 풍금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저자 : 러셀 로버츠 지음, 이지연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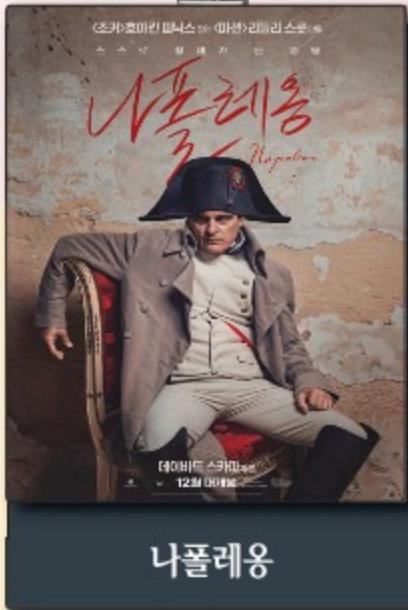
발행처 : 세계사 / 발행년 : 2023 / 청구기호 : 199.1-로44ㄱ / 자료위치 : [양양]종합자료실

'고민하는 존재', 인간의 숙명인 것이다. 그중에는 어떤 색 옷을 입을지 혹은 어떤 음료를 마실지 같은 소소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를 진짜 고민하게 하는 것은 결혼, 출산, 취업, 이직, 독립 등과 관련된 인생의 중대사들이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감당해야 할 문제들. 하지만 데이터나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가? 결심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이끌고 지탱해 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인간의 무모한 도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되는 두려움과 상실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골몰했던 천재 과학자, 경제학자, 사상가, 시인, 미식축구 감독, 청소부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추적한다.

일반

양양
작은영화관
상영예정작

문화마당 23



나폴레옹



매직 프린세스 : 얼음괴물과
사라진 열쇠의 비밀



리빙 : 어떤인생



뽀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노량 : 죽음의 바다



아쿠아맨과 로스트킹덤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yangyang.scinema.org>

☎ 033-673-7050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다녀와서



이명옥 자원봉사자

지난 2023년 5월 양양군 자원봉사대학을 수료하고 20기 멤버로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조막손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내 스스로에게도 감사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라는 큰 행사에 전체 일정에 참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22일 폐막일까지 보름동안 동기 기수 3명과 함께 교대근무로 “산림평화관”에서 봉사하였고 전체적으로 각 요지에 30명에 이르는 양양군 자원봉사대원 분들의 활약이 대단했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 한솥밥을 같이 먹게되면서 기수별 선배님들과 친해지는 좋은 계기도 되었습니다.

아침 8시 50분 봉사대원들 같이 모여서 출발하고 저녁 6시에 돌아오게 되는 전세버스 차량이 보름동안 마치 직장생활을 하며 탑승하는 출퇴근버스로 생각들 정도였고 글을 적는 오늘, 출근하지 않는 내 모습이 이상하기까지 했습니다. 145만명에 이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입장객이 방문했다고 하니 큰 행사에 개인으로는 작은 봉사였지만 “이런 기분에 봉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각인되었습니다.

행사 참여기간 내내 날씨가 너무 좋았던 것도 많은 입장객이 방문 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행운이지 않았겠나 생각 들었고 교대근무 해주시는 시간에 행사장 한쪽에 마련되어 있던 30분 정도 소요되는 산책로를 걸으면서 봉사도 봉사지만 매일 숲을 만끽하며 사색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또

다른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즐겁다라는 얘기를 하니 ‘솔방울 전망대’를 빼놓으면 안될 듯 하네요. 누구의 아이디어 였을까? 강원도를 대표하고 산림을 대표하는 소나무, 솔방울을 모티브로 만든 45M 높이의 전망대를 천천히 오르면서 26개의 포켓전망대를 통해 360도 전망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동해바다와 울산바위를 비롯해서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들과 숲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는 거 자체가 즐겁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한 무장애길(배리어프리)로 완만한 경사길로 조성이 되어서 다른 지역 전망대에 자랑거리가 아니겠나 싶구요.

마지막으로 행사장에 늘 30~40분 일찍 도착하여 사전 담당업무 준비를 하고 입장객 내방전에 여유있게 전망대를 오르내릴 수 있는 개인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양양군자원봉사센터에서 인력 운용을 잘 계획하고 준비한 것도 있지만 시간 관리도 잘 해주신 덕분인 듯합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한건도 없이 행사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고생하신 센터장님과 센터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행사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고생많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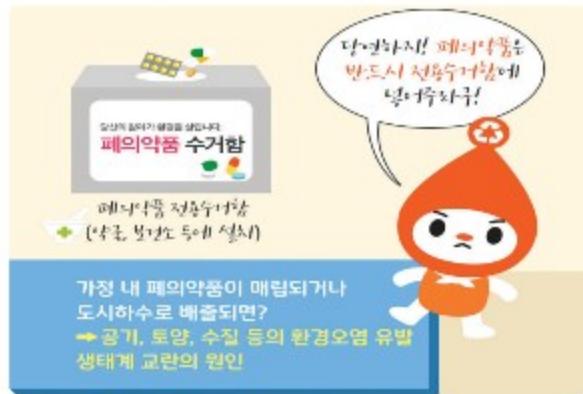
양양소식지 일자리정보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여
초원환경산업(주)	2명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원	08:00~17:30 (주5일)	일급120,000원
(주)재성정보통신	2명	통신장비설치, 수리원	09:00~18:00 (주5일)	연2,640만원
주식회사 장원	1명	토목시공(공무)기술자	08:00~17:00 (주6일)	월500만원
주식회사 현대전기	2명	내선 전기공 (전기기능사 필수)	08:00~17:00 (토요격주휴무)	연3,200만원이상 (협의)
대한광물(주)	1명	덤프트럭운전원	07:00~18:00 (주5일)	월335만원이상 (협의)
보릿고개	1명	주방보조원	09:00~16:00 (주6일)	시급10,000원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술자 (수질환경산업기사)	09:00~18:00 (주5일)	임금협의
	1명	기계, 전기시설 유지보수원	09:00~18:00 (주5일)	임금협의
(주)매홍엘앤에프	1명	무역사무원(영어)	09:00~18:00 (주5일)	연4,000만원 (협의)

폐의약품 수거

나우의 참견
다 먹고 남은 약, 어떻게 버리지?
그제, 결심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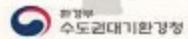


첨부파일: [첨부]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있게

- 명칭 : 희망2024나눔캠페인
- 기간 : 2023.12.01. ~ 2024.01.31.(62일간)
- 슬로건 :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강원을 가치있게!
- 기부참여 방법
 - 읍·면사무소 이웃돕기 성금 창구 접수
 - 계좌 입금 : 농협 203-01-448497
(강원공동모금회)
 - ARS : 060-700-0577
 - 쉽고 빠른 QR코드 기부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안내

사업목적 :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LNG) 보급 지원

지원대상 : 양양군민 대상, 양양군에 주소를 둔 건물에 한함

※ 신청자는 주택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주택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시 세입자도 신청가능
지원요건 : 도시가스(LNG)가 공급되는 지역에 당해 연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에 한함

지원금액 : 일반세대 1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가능

신청접수 : 양양군청 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

(www.greenproduct.go.kr/boiler)

문의사항 : 양양군청 환경과 (☎033-670-2182)접수

우리집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질 오염의 주범?

적환재물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평균 1회당 20% 미만인 하수도로 투입됩니다. 하수는 음식물쓰레기와는 80% 이상 회수율으로 회수해 물을 절약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

하수도로 투입

< 물범 제품 > ①대량의 반식재품과 경우 더울 수 있습니다.



한국가습기안전원 확인

※ 한국가습기안전원 제품은 공식 홈페이지(www.kwst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제품 사용의 피해에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관통 막힘, 막히 발생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오염

※ 불법제품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개선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마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제공해조치 지원사업 참여하고 단속제외 받자!

2023. 12.
~ 2024. 3.

제5차 개선관리제

단속기간

23년 12월 ~ 24년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 충남은 오전6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수도권 단속 제외 차량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긴급 차량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단속 제외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단속대상

단속지역에 진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교대료

1일 10만원
* 최초 적용 자차제에서 가
대로 부과

등급확인 및 제공해조치 인증방법

온센터

등급제 플랜더 1833-7435

한국자동차 조기폐차 플랜더 1577-7121

환경부 차량폐차 플랜더 1544-0907

제당 사도 차량번호+120 내용이 등록된 차량번호

종합여행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자급해조지 신작 차량
12월, 3월, 6월, 9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자급장치 증차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 차량
소신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기부행위 상시제한

Q.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임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Q.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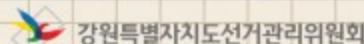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Q. 만약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죠?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국번없이
1390

기부행위 위반신고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설저히 보호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Q. 재외선거는 누가 하는 건까요?

A.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전 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국외부재자)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재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재외선거인)은 2024. 2. 10. 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후 투표가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은 ova.nec.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외선투표는 언제 하나요?

A. 투표일은 2024. 3. 27.~4. 1. 까지입니다. 국가상황에 따라 공관 별로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운영기간을 확인하시고 투표하세요^^

Q.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인가요?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A.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 현판, 현수막 게시
- 어깨띠 또는 표지를 착용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및 발송
-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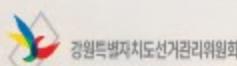
국번없이

1390

선거법 위반신고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설저히 보호됩니다.



건강한 정치를 위한 토양

정치후원금

비옥한 토양에서 올창한 숲을 이루듯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건강한 정치문화를 이룹니다.

-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세제)
- 동 기관별 소득 및 결정세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국번없이 126)
-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 가능

기탁한도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
후원한도 : 각 후원회별 500만원까지
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정치후원금센터
www.give.go.kr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WINTER YOUTH OLYMPIC GAMES GANGWON 2024

01.19-02.01

GET YOUR TICKETS GANGWON2024.COM

경기티켓
무료예매



GROW
TOGETHER
SHINE
FOREVER

뭉초
MOONGCHO